본문 : 출애굽기 2 장 1-10 절
제목 : 여인의 향기

1. 개혁

10 월 마지막 주는 교회 전통에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10 월 31 일에 일어난 사건 때문 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작은 움직임 였지만 큰 반향을 일으켰죠. 1517 년 10 월 31 일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 앞에 라틴어로 된 "95 개조 반박문"을 붙입니다. 논쟁이라는 뜻의 "Disputatio"라는 이 문서는 기독교 역사에 가장 강력하고도 폭발적인 저항 운동이된 "종교개혁"을 촉발시킵니다. 이 문서를 붙인 의도는 기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개혁이 뭘까요? 한자를 보면 고칠 개(改)와 가죽 혁(革)자를 쓰지요. 동물의 피부 껍질은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털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무두질을 하고, 색을 입혀야 가죽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개혁이란 진리와 자유를 위한 변화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해 봅니다. 더 옳고 더 선한 방향으로의 작은 변화들이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대학교에 입학해서 캠퍼스에 들어섰는데 그 학교의 모토가 커다란 돌에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형제님은 진리란 뭐고 자유란 뭘까?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하겠다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를 속박하는 것들은 진리가 아니고, 나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 진리이겠구나라는 것이죠. 루터도 믿는 자들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속박하고 가둬 놓지 말고 자유케 하라는 의도에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진리와 자유를 향한 작은 변화와 움직이 개혁에 불을 붙인 겁니다. 루터는 95 개조 반박문을 붙일 때, 이것이 가져올 파장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작은 문서 하나가 기독교 전체를 흔들어 놓을 지 어떻게 그가 알았겠습니까? 그는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행동한 것 뿐이었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이 한 행위는 매우 작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키운 것, 아이를 돌본 것, 아이를 지켜 본 것, 아이를 건져 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의 산파들의 이야기와 함께 여인들의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책, 출애굽기 맨 처음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2. 비범한 아이의 탄생

본격적으로 모세가 역사 속에 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인 가문의 한 남자가 같은 레위인 가문의 여자랑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위족속은 이 때만해도 제사장 족속이 아니었습니다. 12 명의 야곱의 아들들 이름으로 만들어진 족속들 중에서도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 평범한 가문에서 모세가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의 외모가 비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잘 생겼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Tov"입니다. "Good, pleasure, excellent, fine" 이란 뜻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고 할 때 쓰인 말이 토브입니다. NIV 에서는 'fine', KJV 에서는 'goodly'로 번역했습니다. 범상치 않는 아이였다는 겁니다. 모세는 실제로 매우 잘 생기고 매력이 넘치는 아이였던 겁니다. 여기서 못 생겼다고 하면 사람들이 연민을 덜 느꼈을 수도 있는데 잘 생겼다고 하니 더 안타까운 거죠. 인간이 이상한 버릇이 있는 겁니다. 파라오는 분명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버려라!"고 했는데 차마 던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잘 생겼거든요. 그래서 석 달 동안이나 그를 숨겨서 기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가니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하늘의 뜻에 맡기기로 해 봅니다. 아이를 위해 갈대로 만든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끈적끈적한 역청과 송진을 발랐습니다. 아이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상자로 번역된 말은 Tevah(תֵּבָה)인데요, 노아가 만든 방주를 가리켰던 말입니다. 인류를 구원했던 방주에 실린 노아와 마찬 가지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갈 모세가 그 'Tevah'에 실려가고 있습니다. 아기 모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엄마의 품을 떠나 나일강에 띄워진 모세를 차마 그냥 보낼 수 없어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누나인 미리암을 따라 보냅니다. 그렇게 모세는 운명에 맡겨진 채 어딘지 모르는 곳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죠.

3. 건짐을 받은 자

때마침 파라오의 딸이 나일강에 나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죽으란 법은 없나 봅니다. 모세의 갈대상자가 파라오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고 공주는 시녀들을 시켜 상자를 가져오라 합니다. 갈대상자가 뚜껑이 덮여 있었나보죠? 뚜껑을 열자 갑자기 밝은 빛을 쬔 아가가 울기 시작합니다. Mirro Neuron,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거울 신경 세포가 있어서 상대방이 울면 나도 함께 울고 싶어진다고 합니다. 꼬마들 한 명이 울면 모두 따라우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런 거울 신경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싸이코패스라고 하죠. 싸이코패스는 타자들의 아픔을 상상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행히 파라오의 딸은 싸이코패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울고 있는 아기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아기가 히브리 아기였는데도 말입니다. 어떻게 히브리 아기인지 아냐구요? 아브라함 때부터 히브리 남자 아기들은 8 일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 남자 아이의 중요 부위만 봐도 이 아기가 히브리 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지금이 모세의 누나의 활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몇 살차이인지는 모르지만 누나는 정말 똑똑하게 감히 이집트의 공주에게 다가가 말을 건냅니다. 이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당시 히브리 노예들이 감히 공주에게 말을 건낸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미리암의 마음에는 어떻게든 동생의 생명을 구해야겠다는 마음 뿐이었습니다. 소녀는 자기가 가서 젖을 먹일 히브리 유모를 구해 오겠다고 하고 공주는 허락합니다. 소녀가 유모로 데려 온 여인은 소녀의 어머니이자 아기의 어머니인 요게벳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유모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운명에 맡겨졌던 아기 모세는 파라오의 딸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파라오의 딸은 이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말이 Masha(מָשָׁה)입니다. 마샤의 분사형태가 모쉐입니다. 분사 앞에 관사를 붙이면 "~한 사람"이란 뜻이 되어 모쉐는 "건짐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저도 영어 이름을 모세로 해야 하나 하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너 살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저에겐 기억이 없습니다. 당시엔 세탁기가 없는 시절이라 동네 냇가에 빨래터가 있었습니다. 흐르는 시냇물은 빨래를 행구기에 제격이었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대식구의 빨래를 하시며 열심히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빨래에 집중하셨으면 꼬맹이였던 제가 깊은 물에 빠져버린 지도 모르셨나 봅니다. 아기가 빙글빙글 물 속에서 돌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동네 아저씨가 발견해서 물에서 건져내 주어 살 수 있었다 합니다. 저도 '건져진 자'로서 손색이 없지 않나요?

4. 생명에 대한 감수성

파라오의 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딸이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죠. 제국의 균열은 그렇게 내부 반발자에 의해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제국을 무너뜨린 것은 다름 아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공주가 행한 긍휼은 압제를 당하는 이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작은 방향 전환이었고 작은 움직임일 뿐이었지만 역사를 뒤흔들어 놓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파라오의 딸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없었다면 출애굽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공주의 마음은 연민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불인지심 (不忍之心)'이라 합니다. 인격을 가진 인간을 동물처럼 그냥 죽일 수 없는

마음이죠. 파라오는 히브리 사람들을 인격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어 마땅한 동물과 같이 여긴 것이었죠. 동물도 그렇게 죽이면 죄스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의 딸은 아기의 울음에 반응할 줄 아는 불인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역사 속에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여인의 순종과 반응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꿈은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누나 미리암, 그리고 파라오의 딸, 이 셋의 공통점은 무엇인까요? 먼저 여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제된 사람들에 대해 아끼는 마음이 이 세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흔 아홉 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생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꿈은 오늘도 이 땅 위에 실현되어 가는 것입니다.

5. 여인의 감수성

마초적인 남성성의 엔트로피는 이 세상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쪽으로 흘러오게 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에 대한 민감한 여성들의 감수성은 오히려 이 세계를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으로 치유해 왔죠. 여성은 좋고 남성은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Testosterone, 즉 남성성이 지배하는 세상은 인류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을 압제하는 폭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반대로 Estrogen, 여성성이 지배하는 긍휼과 자비의 세상은 그런 파괴된 세상을 치료해 왔지요. 예수님도 테스토스트론이 적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불의에 굽히지 않았고 거짓된 종교 시스템에 과감히 맞서 싸우셨지요. 성전 뜰에서 환전하고 부당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기도 하셨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에스트로겐도 충만하셔서 광야에서 굶주려가는 군중들을 향해 긍휼히 여기시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십자가를 지고 희생해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포용하며 공감하고 측은히 여기는 여성성에서 시작합니다. 그러기에 출애굽의 서막이라 할 수 있는 1-2 장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을 오롯이 여성들이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고, 아이를 돌보며 식탁을 준비하는 여성들의 헌신은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이 인류를 구원할 만큼 중요한 일임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행하시는 가사 노동이 전혀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매일 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사소한 가사 노동이 없다면 가정이 유지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없이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낸 아이 가운데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 만큼 영광스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길러 내시어 그분의 나라의 구원계획을 진행해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은 우리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의 수고와 헌신은 아무리 칭찬받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6. Katharina von Bora (14999~1552)

위대한 종교 개혁자 루터의 그늘에 가려진 그의 부인 카타리나 폰 보라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녀는 시토회(Cistercian) 소속의 수도원에 들어간 수녀였습니다. 참고로 시토회는 엄격한 규칙을 강조하는 베네딕토 수도회 보다 더 강력한 규칙을 고수했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수도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더 느꼈는지 몇몇 수녀들을 데리고 수도회를 나왔지요. 수도회를 나온 그해 루터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뤘습니다. 루터와 그의 가족은 그들의 집을 비텐베르크에 있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안에 마련하여 살았습니다. 수도회에는 루터와 뜻을 같이하는 신학자들과 학생들이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은 루터가 펼치는 개혁 사상을 함께 토론하며 하나님의 꿈을 그곳에서 키워갈 수 있었죠. 그들의 Table Talk 는 종교개혁의 요람과도 같은 것이었죠. 테이블 토크를 통해 많은 사상들이 만들어지고 퍼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조가 연못 위에 유유히 떠가는 것 같지만, 물 아래에서는 열심히 발을 저어야만 합니다. 루터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종교 개혁자가 되고, 개혁 사상들을 전파하는 데 있어 아내의 내조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루터의 종교개혁은 강단에서 시작하여 식탁에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카타리나는 가족과 친척과 학생들로 북적이는 자신의 집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농사를 지어 식량을 생산하고, 양조업을 통해 재정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숙박까지 책임지는 중노동을 그녀는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루터가 연구와 가르침과 설교, 그리고 저술 활동을 통해 종교개혁을 확장시켜 갔다면, 카타리나는 매일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방식으로 개혁을 실현하였던 것입니다. 매우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 삶 속에서 개혁이 유유히 진행되어 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상의 개혁화, 개혁의 일상화"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어떤 커다란 것을 개혁하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삶을 개혁하며 시작됩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일상의 작은 일들 안에 사랑을 가미하고 긍휼의 양념을 치며 살아가 보십시오. 개혁은 매우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유를 향한 작은 방향전환, 거기에서부터 개혁은 시작됩니다.

여성적인 부드러움과 희생, 그리고 말랑말랑한 관용 속에 구원의 진주가 숨겨져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엄한 아버지의 이미지라면 사랑의 하나님은 여성적인 이미지의 어머니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어머니의 이미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귀하신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 없는 섬김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처럼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 오고 계시는 섬김과 사랑을 포기하지 마시고 줄기차게 이어 가십시오. 여러분의 그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힘차게 전진해 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과 같이 작은 자를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작은 일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뤄짐을 믿고 힘 있게 한 주간의 일상을 살아내십시오.

<소그룹 나눔>
1. 내가 행한 작은 친절과 공감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함께 나눠봅니다.
2. 일상의 사소한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 사이에 무슨 상관 관계가 있는지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나눠봅니다.